

# 군산캐릭터 '먹방이와 친구들' 호평

### 넥스트콘텐츠페어 참가 관객 관심 뜨거워 홍보대사 역할 특목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만든 군산 캐릭터 '먹방이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대 콘텐츠 행사에서 뜨거운 호응과 호평을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문화협동조합 'G-Local i' (이사장 박형철)에서 만든 '먹방이와 친구들'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7 넥스트콘텐츠페어'에 참가했다고 16일 알려졌다.

'넥스트 콘텐츠 페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대 콘텐츠 행사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벡스코가 공동으로 주관,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콘텐츠와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다.

'먹방이와 친구들'의 넥스트콘텐츠페어 참가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인정한 대표 캐릭터로서 참가, 전라북도 공동관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를 배정 받았다.

군산문화협동조합 'G-Local i'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싱가포르 게임회사와의 캐릭터 비즈니스 성과 비로써 타 시도 관계자 및 관람객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저작권료 지원 및 초콜릿 개발 업체와의 업무협약의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부스를 찾은 관람객 최혜지씨는 "군산을 잘 알지 못했는데 '먹방이와 친구들'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보고 나니 꼭 군산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군산문화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먹방이와 친구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각종 캐릭터 행사참여는 물론, 시간여행 축제 플라마켓 운영 등을 통해 인지도 상승과 지역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아울러, 전북테크노파크의 비콘사업개발 참여 및 군산대 LINK사업단과의 먹방이캐릭터 홀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하며 향후 군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먹방이 친구들'의 성공은 통영 및 나주시의 벤치마킹 견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다.



'먹방이와 친구들'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7 넥스트콘텐츠페어'에 참가한 가운데 관광객들이 '먹방이와 친구들' 부스를 방문, 캐릭터를 살펴보고 있다.

시민 이남철(39)씨는 "관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노력이 지역 캐릭터 성장과 군산을 알리는데 큰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문화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조합을 구성하고 5월 '먹방이와 친구들' 선포 이후 순수 자비로 북미 최대 캐릭터 행사인 라스베가스 라이선싱 엑스포 대회 및 7월 코엑스에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7 참가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그동안

노력이 이번 넥스트콘텐츠페어 참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의 근대스토리를 접목한 '먹방이와 친구들'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군산시도 하루 빨리 무료 저작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사업개발을 전개해 민간이 함께 여는 군산문화관광 발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삼례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젝트 '원활'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삼례공업고 학생 대상 수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삼례공업고등학교(교장 정훈량) 도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젝트 수업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해 학습자 중심으로 해결하는 수업 방식으로, 미래 기술명장 배출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한 기초 수업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해

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교 단계의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서 새로운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삼례공업고등학교 도제부장 박양균 교사(49)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기초능력 습득과 함께 현장적응력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도제지원센터장 이승민 교수 역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처음 실시하는 프로젝트 수업이지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 성공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올 가을 가볼만한 농촌교육농장 어디?

### 익산농기센터, 대파니힐링팜 · 자연나라 교육농장 등 소개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올 가을 온 가족과 어린이들이 가볼만한 농촌교육농장을 소개했다.

농촌교육농장은 농촌·자연을 소재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이 재밌고 유익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익산시에는 농산물 수확, 다도·전통예절, 압화·천연염색, 동물, 전통음식 등 여러 주제를 가진 농촌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장장을 정비한 '대파니힐링팜'과 '자연나라 교육농장'이 더 나은 체험환경과 서비스로 체험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파니힐링팜'은 동물을 주제로 한 교육농장으로 다양한 동물을 직접보고 먹이주기, 승마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두부체험장을 새로 정비하여 두부 만들기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가을을 맞아 익산의 특산물인 고구마 캐기 체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미 팥방유치원, 삼기초, 오산남초, 전주 송북초 등 많은 아이들이 농장을 방문했으며, 10월 14일에는 이라북초 학생들과 농식품개발원과 연계를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방문한다. 숙박이 가능해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왕궁리유적 등 주변에 위치한 관광지를 둘러보기에 좋다.

'자연나라 교육농장'은 올해 지원을 받아 사업장 정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농산물수확, 감장체험 및 직접 수확한 신선한 채소로 간단 요리하는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직

접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장으로 친환경농법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이라초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고구마 캐기, 떡메치기체험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익산시 교장단협의회를 초청해 농장을 소개, 홍보한다. 근처에 응포곰개나루, 송림사, 교도소세트장, 금강 성당포구 비탈개비길 등 익산시 관광자들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다.

'미륵산 자연학교'는 고구마를 주제로 교육·체험을 진행한다. 자연의 산야·숲 등의 코스에서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하여 길을 찾는 오리엔티어링, 자연에서 보물찾기, 체험형 농가민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에 비배류장이 마련되어 있어 숙박객에게 인기가 많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도의원 간담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1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내년 도비 지원과 주요 현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율 익산시장과 김영배, 김대중, 최영규 도의원 등이 참석하여 시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익산시가 시급한 현안으로 요청한 익산IC~금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방분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준공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행구간 잔여예산 188억원이 내년 전라북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내년 전국체전 대비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40억원,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20억원,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 13억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내년 도비 지원과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함열농공단지 기업유치 새활력

### 유치전략 전면 재조정... LED관련 산업 클러스터화 속도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익산함열농공(전문)단지 기업유치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 LED제조업 외 유치 가능한 업종의 기업투자 유치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LED 생산 전문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LED 전문 생산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LED 제조업 외 유치가능 업종인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50% 범위 내 유치 가능한 타 업종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단지가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LED 관련 산업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익산시 영등동 비즈니스센터 내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한국조명연구원 남부분원의 장점을 심층 활용하여 분원과 협력을 통해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분원에서는 LED 생산인력과 전문가 교육을 맡아 해당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함열농공(전문)단지는 합열을 와리 및 용안면 동지산리 일원에 32만9,000㎡(약10만평)(산업시설 22만8,519㎡, 지원시설 7,356㎡)를 LED 전문 단지로 조성하여, 현재 기반공사(시행사:익산 LED협동화단지(주))중으로 2017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익산시와 익산LED협동화단지(주) 관계자는 "기업 유치전략 다양화와 투자 유치 병행을 통해 앞으로 기업유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에 대해 착공에서부터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투자유치 성공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향후 관련 기업들의 추가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